

차세대 성장 산업, 마린 라이프와의 만남 '블루 오션 벨트'

김 현 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hakim@cerik.re.kr

해양 자원, 새로운 먹거리와 新시장으로 부상

2012년 세계 최초로 해양을 테마로 한 엑스포가 대한민국 여수에서 개최되었다. 여수엑스포 개최를 발판으로 해양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엑스포 이후 인근 지역과 연계된 산업, 관광 개발을 통해 국제적인 해양 관광 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FTA 시장 개방, 여수해양엑스포 개최, 미래 성장 산업의 발굴 필요성 등을 내세워 이미 미래 가치 창출의 기반으로 해양 레저 관광을 육성하려는 전략¹⁾을 제시하였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은 레저장비산업과 관광서비스업 등 다양한 전후방 연관효과가 있어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소득 수준 향상, 주5일제 근무·수업의 시행으로 여가 시간이 증대되면서 관광이나 여가에 대한 수요 기반이 과거보다 확대되어 있다는 점도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항로

100개(2010년 12월 현재), 여객 이용자 수 1,500만 시대(934만(2001년) → 1,431만(2010년))에 돌입했다. 이용객 성장 규모로 살펴보면 동남권보다 서남권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외래 관광객의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에서 유입되고 있는데 이들이 머물다 가는 관광지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분산하는 관광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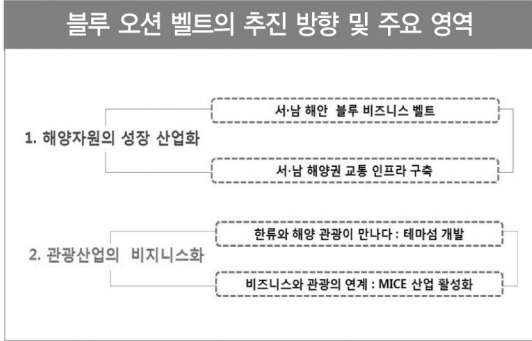
'블루 오션 벨트'는 해양 자원을 성장 동력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총칭하는 용어로 추진 방향은 첫째,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서남권 등 기존 해양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둘째, 관광산업과 전후방 연관 효과를 갖는 레저장비산업 및 관광서비스업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다.

서·남해안 블루 비즈니스 벨트 조성

서남해안은 온화한 기후 조건과 수려한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권에서

1) 정부는 남해안 해양 레저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광역 교통 체계를 확충하였는데 남해안 관광객 수는 2000년 7,800만명에서 2010년 1억 6,00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집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



중국과 일본, 동남아를 연결하는 지경학적 요충지이다. 부산항, 가덕항, 광양항 등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이 위치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상 물류의 중심 지역이 되고 있으며, 울산에서 부산, 창원, 광양, 여수로 연결되는 남해안은 조선, 자동차, 항공, 제철,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입지한 국내 제일의 산업 집적지이다. 아울러 남해안권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新성장 축으로 영호남의 남해안을 초광역 개발권으로 통합하여 지역 감정 해소, 국가 통합, 국토 균형 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진 지역이다.

따라서, 중국의 광역 거점 지역 전략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남해안권의 각종 거점 지역을 통합 혹은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광역 거점화 전략의 추진이 요구된다.

정부는 해안권 초광역 개발을 위해 2010년 5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에 따라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남해안 선벨트사업)을 수립하였다. 그동안 시범사업 추진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국내 건설경기 침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과 맞물려 민간 투자가 부진해지면서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블루 오션 벨트에서 제안하는 첫 번째 사업은 기존

의 개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남해안 선벨트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서·남해안 거점을 견고히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주요 거점(남동·남서·부산)별로 조선 기자재, 해양 플랜트, 레저 선박 등 조선 특화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데, 여기에 항공 우주, 로봇, 핵 과학, 희유금속²⁾ 등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연구기관, 지원 센터의 유치도 필요하다. 아울러 해양 바이오, 친환경 식품, 화훼, 수산 등 지역 농수산물의 전략 산업화를 통해 어촌 도시들의 재생이 요구된다.

최근에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리조선사업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2008년 조선산업의 수주량은 세계 1위(38.3%)로 남해안이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요트·보트 등 장비 제조 세계 시장은 500억 달러, 대형 조선시장은 약 60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남해안 교통 인프라 구축과 테마 섬 개발

서·남해안권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남해안권을 초광역적으로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목포와 부산을 연결하는 선벨트-KTX 등 서·남해안 일주 철도를 복선·전철화하고 내륙연계 고속도로(광주~완도, 통영~거제 등)의 건설로 통합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목포와 부산을 2시간 통합 생활권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교통 인프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서·남해안권에 계획 및 추진 중인 국도 77호선을 단계적으로 연결

2) 희유금속(rare metal) : 마그네슘, 티타늄 등 산출량이 적거나 정련이 어려운 금속.

하거나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교량 등 다도해, 한려수도권에서 연륙·연도교 건설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광역 교통망이 구축된 이후 필요한 것은 관광 자원의 개발이다. 이미 서·남해안은 풍부한 관광 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일고 있는 한류 열풍과 체험형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관광 아이템의 발굴이 요구된다. 블루오션 벨트에서는 특히 테마 섬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도서는 모두 3,170여 개소에 이르는 데 이 중 85%가 무인도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서 개발은 주로 대형 섬 위주의 종합 관광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중소 규모 테마형 도서 개발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소득 증가에 따라 레저 및 관광 패턴이 변화되면서 장기 체류형, 테마별 체험형 레저를 선호하고 있어 소규모 도서 개발을 위한 환경은 과거보다 매우 호전되었다. 내륙 지역에서는 이에 적합한 관광 개발 가능성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규모 도서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은 있으나 육지와 가까운 섬의 개발은 해양 교통시설 확충, 연륙연결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과거보다 문제점 해결에 큰 어려움이 없어졌다. 우선 내륙에서 가까우면서도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낮은 무인도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테마 관광 섬 개발을 제안한다. 주요 테마는 한류 열풍을 극대화하는 4가지 주제로 선정하였다.

첫째, 뽀로로왕국(유아용 교육)이다. 뽀로로는 이미 국제적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디즈니랜드를 대체하

는 수준으로 한국의 뽀로로 테마 섬³⁾을 개발해 교육·레저 및 체험은 물론 한국 애니메이션을 홍보하고 보급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쿠쿠아일랜드(요리 테마)이다. 점점 더 건강·치유 등의 대체 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비롯한 동양 음식과 약용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쿠쿠아일랜드는 한국 및 동양의 음식과 요리법, 식자재 체험 등을 가미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아울러 인근 내륙에 국제적인 요리 학교 및 식품가공산업을 연계시키자는 계획안이다.

셋째, 영어왕국(어학연수 체험 전용) 개발이다.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는 어학연수 수요⁴⁾를 국내로 재유입시킴으로써 외화 낭비도 줄이고 국내 교육 및 관광 산업 증진에도 기여하자는 것이다.

넷째, 힐링 아일랜드(휴양, 회복)이다. 서남해안의 온화한 기후를 이용하여 전문 요양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테마 섬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서 개발은 유인도에서도 가능한데 한류의 문화적 영향력을 활용하고 나아가 해외로 유출되는 관광 및 교육, 헬스케어의 내국인 수요까지도 국내로 재유입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외국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 시설은 물론, 각종 회의 등 컨벤션 시설도 크게 부족한 게 현실이다. 특히 지역별 편중도 심각한데 지방의 경우 새로운 부지를 모색하는 것보다는 주요 공항청사 및 KTX청사를 복합 개발하여 컨벤션, 전시, 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CERIK

3) 2010년 아이코닉스와 오른은 각각 50%씩 자본을 투자하여 '뽀로로파크'를 설립, 지난해 동탄점을 시작으로 신도림, 파주, 킨텍스 등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4) 서울시교육청 '2011~2012년 여름방학 중 해외 어학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594개 공·사립 초등학교 재학생 50만 6,437명 가운데 4,124명(0.8%)이 2012년 여름방학에 해외 어학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음.